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

일시: 2009년 4월 13일 오전 10시30분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5명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꼼꼼히 분석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살기 좋고 오고 싶은 광주 만들기 앞장서주길”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위원장)



10대 약속 고치자 시리즈로 다뤄야

류동훈 (광·전 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첨여한 갈등 사안 대안 제시했으면

▲조현중(위원장·국립광주박물관장) = 지난 2월 독자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던 지난 두 달이었다. 제 3차 독자위원회를 통해 잘한 점과 개선해 나가야할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와 광주일보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 3월9일자 6면 '광주교통사고 2년 연속 1위' 기사에 이어 3월12일자 1면 '국민 600명에게 가보고 싶은 곳 물었다니 전남 146명 광주 단 1명' 기사까지 광주가 불명예 1위를 연이어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이때문에 12일자 사실에서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광주일보에서부터 캠페인을 꾸준히 해 나가야한다. '가보고 싶은 곳 광주 단 1명' 기사의 경우 이를 더 부각시켜서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한데 너무 스토리텔링 기사 위주로 작게 기사를 쓴 것 같아 아쉬웠다.

▲이묘숙(도슨트협회 회장·주부) =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2~3월까지는 다양하게 다뤄주다가 가장 많이 다뤄져야 할 시기인 4월에는 기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는데 지방지라 직접 취재는 어렵더라도 북한 소식인 만큼 빠른 소식이 필요하다.

2월25일자 6면 '세모자 살인사건' 기사를 굳이 3일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잇달아 실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강호순 사건과 비교하면서 살해 이후 방화에 비유하면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잔혹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보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비추어질 수도 있다.

3월13일자 9면 '기분 전환용 꽃무늬 망사 어떨까' 기사는 광고성 기사로 현 경제상황과도 맞지 않은 기사였다. 불과 며칠 전인 3월2일 1면 '급식비 못 낸 학생 급중' 기사에서 경제불황으로 학교 급식비를 장기 체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3~5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속옷을 소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좋은 상품을 값싸게 소개해야 하는 경제 상황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기사였다고 본다.

4월2일 6면 '가족끼리도 접근금지 신청' 기사에서 사례만 썰어 늘어놓은 원인을 찾는 분석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 왜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지, 왜 폭력을 자기 방어로 이용하려 했는지 자세히 취재가 됐어야 한다.

▲문상필(광주 북구청에이인복지회 이사장) = 올해는 광주시가 부분별로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너무 많았는데 광주일보에서 광주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지 취재했으면 좋겠다. 최근 너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가는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분위기를 바꾸는 내용의 기사가 필요하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흥빈씨와 정후식 기자의 남극 탐험 기사가 좋은 예

비론이 아닌 확실한 방향제시를 잘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비춰졌을 때 한번 새겨진 지역의 이미지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원만하게 철거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2월25일자 6면 '세모자 살인사건' 기사를 굳이 3일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잇달아 실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강호순 사건과 비교하면서 살해 이후 방화에 비유하면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잔혹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보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비추어질 수도 있다.

3월13일자 9면 '기분 전환용 꽃무늬 망사 어떨까' 기사는 광고성 기사로 현 경제상황과도 맞지 않은 기사였다. 불과 며칠 전인 3월2일 1면 '급식비 못 낸 학생 급중' 기사에서 경제불황으로 학교 급식비를 장기 체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3~5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속옷을 소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좋은 상품을 값싸게 소개해야 하는 경제 상황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기사였다고 본다.

4월2일 6면 '가족끼리도 접근금지 신청' 기사에서 사례만 썰어 늘어놓은 원인을 찾는 분석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 왜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지, 왜 폭력을 자기 방어로 이용하려 했는지 자세히 취재가 됐어야 한다.

▲문상필(광주 북구청에이인복지회 이사장) = 올해는 광주시가 부분별로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너무 많았는데 광주일보에서 광주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지 취재했으면 좋겠다. 최근 너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가는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분위기를 바꾸는 내용의 기사가 필요하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흥빈씨와 정후식 기자의 남극 탐험 기사가 좋은 예

다. 최근 광주에서 무등산 조례나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양비론이나 양사론 시각이 아닌 광주일보만의 시각이 필요하다. 진일보한 시각으로 대안제시를 해야한다. 옛 전남도청 철거문제 등 자구 좌우의 편 가르기가 되는데 아래와 위를 보는 계층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현중 = 살기 좋은 광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시적이지만 광주시의 가로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은행나무나 메타세콰이아 나무 등이 가로수로 시민을 위한 풍치를 제공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삭막한 시멘트 거리를 녹색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게 가로수의 역할이다. 그런데 최근 광주의 한 도로를 가다가 깜짝 놀랐다.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한창 자라는데 그 중간부분을 자른 것이다. 전선 등 여러 문제로 잘랐겠지만 조형적 감각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잘라 내셔야 되겠다.

4월13일자 11면 '장흥 보림사 자산 무단 매각 발생' 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불법 건축물을 짓는 짚을 더욱 비판했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일보에서는 문화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건축물 자체를 팔았다는 내용이었는데 데스크에서 좀 더 세심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광주의 10대 약속을 고치자 시리즈로 광주가 외지인으로부터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 가고 싶은 곳 최하위로 뽑혔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고 싶은 곳 몇 곳이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묘숙 = 대인시장 예술인공방거리 조성 관련해 지속적인 보도도 아주 좋았다. 하지만 전남지역 등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4월6일자 13면 도서관 주간 주요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기 좋았다.

▲조현중 = 우리부터 광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외부사람들이 광주를 좋아하겠는가? 우리가 살기 좋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홍보다. 관점이 아니라 생활방식의 문제인 만큼 우리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게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정리=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사진=니름주기자 mjna@kwangju.co.kr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광주 불명예 벗기 캠페인 나서주길

이묘숙 (도슨트협회 회장·주부)



고가의 속옷 소개 시민 위화감 불러

문상필 (북구청에이인복지회 이사장)



1등 광주 찾아내 희망 만들어줘야

“도청 별관 철거 논란 양비론 아닌 방향제시 좋아 ‘세모자 살인사건’ 3일 연속 보도 모방범죄 우려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광주일보만의 시각 필요”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메가박스 www.megabox.co.kr</p> <p>1관 그림자살인 (15세) 최고등급 2관 분노의 질주 (15세) 3관 소퍼출력(12세)/실종(18세)/노잉(12세) 4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5관 용의자 X의 헌신 (12세) 6관 우리집에 왜왔니 (15세) 7관 미스 루시힐 (12세) 8관 슬럼독밀리어네어 (15세) 9관 그림자살인 (15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콜롬버스 시네마 www.joybc.com/ 1588-7941</p> <p>1관 슬럼독밀리어네어 (15세) 2관 더리더-책임어주는 남자 (18세) 3관 용의자 X의 헌신 (12세) 4관 우리집에 왜왔니 (15세) 5관 미스 루시힐 (12세) 6관 신부들의 전쟁 (12세)/카오스 (15세) 7관 그림자살인 (15세) 8관 안나와 알렉스 (15세) 9관 분노의 질주 (15세) 10관 그림자살인 (15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영화 관람객 한정) • 1588-7941 • 100% 현금결제 • 100% 현금결제</p>	<p>하미 시네마 www.hamcinema.co.kr/ 1588-9120</p> <p>1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2관 분노의 질주 (15세) 3관 작전 (15세) 4관 워남소리 (전제) 5관 분노의 질주 (15세) 6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푸시 (15세) 9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10관 실종 (18세)</p> <p>• 5000원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실사 • 이프유 주차장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수영장 289-5757 • 해미 불향당 282-0825 • 해미 골프장 281-5000 • 해미 당구장</p>	<p>씨너스 전대 www.cinus.co.kr/ 1544-0070</p> <p>1관 우리집에 왜왔니 (15세) 2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3관 푸시(15세)/실종 (18세)/그림자살인 (15세) 4관 미스 루시힐 (12세) 5관 푸시 (15세) / 더리더 (18세) 6관 분노의 질주 (15세) 7관 그림자살인 (15세)</p> <p>•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영화 관람객 한정)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씨너스북처 사무시간(오전11시~오후11시)</p>	<p>제일 시네마 www.jelcinema.co.kr</p> <p>1관 그림자살인 (15세) 2관 안나와 알렉스 (15세) 3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4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5관 노잉(12세)/실종 (15세) 6관 분노의 질주 (15세) 7관 미스 루시힐 (12세)</p> <p>• 무료주차 3시간 (영화 관람객 한정)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 100% 현금결제 • 100% 현금결제</p>
---	---	--	--	--